

비상계획관 합격 성공기



중령 고영원 (교육사)

군 생활을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면 전역 후 어떻게 살아야 하나?(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나 역시 '09년 4월 수원에 있는 보훈교육연구원에서 2주간의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후부터는 무엇인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10년 1월부터 직업보도반 기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해지기 시작했다.

우선 이 시점에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본 결과 창업도 귀농도 취직도 아닌 현역 신분으로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비상계획관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시작하였다. 본론에서 기술할 시간활용과 시험 대비 전략은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 경험한 사항을 바탕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비상계획관 시험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1년에 2회(5, 11월)시험을 보는데 나는 경험삼아 '09년 11월에 1차 시험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가용한 6개월 기간의 시간활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간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일과 주말(토·일요일·국경일 포함)로 구분하여 평일은 대략 126일이 가용하고 주말은 54일 정도가 가용하며, 평일에는 1일 5시간, 주말에는 1일 13시간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1,332시간이 가용하고 5개 과목으로 나누어 보니 과목당(법 및 시행령을 한 과목으로 계산) 266시간 정도가 가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근거로 과목당 시간할당을 동일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할 것인가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나의 경우에는 헌법에 투자하는 시간을 다른 과목보다 좀 더 많이 할애하였다.(공부할 분량도 많고 점수 비중도 다른 과목에 비해 높

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과목이 추가되었기 때문) 시간활용의 핵심은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공부를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집중하여 가용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초등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에 학교근처에 사는 친구들은 지각을 하고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나는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일찍 일어나서 10여 리나 되는 길을 걸어서 다닌 기억이 있다. 결국 가용시간이 넉넉하면 마음도 느슨해져 오늘 못하면 내일하지 라는 생각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성과가 저조하게 나온다는 것이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사항이었다.

배점은 100점을 기준으로 서류점수 15점, 법령 40점, 논술 30점, 면접15점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서류점수는 계급에 상응한 직책 및 교육을 수료하고 정보화점수(문서실무사 또는 워드 프로세서 2급 이상 획득)및 상훈점수가 반영되며 대부분이 상훈점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훈장 2점, 장관표창 1.6점) 당락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법령 1문제 틀리면 0.8점의 차이가 나나 서류에서의 점수 차이는 이보다 크지 않음) 나는 정보화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워드 프로세서 2급 필기시험을 2월에, 실기시험을 8월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획득하였다.(미리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이 집중하여 공부하는 데 유리하며 나의 경우 공부하라 자격증 따라 집중하는 데 애를 많이 먹었음)

법령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및 시행령과 헌법 등 5개 과목이며 이번 시험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출제방식이 바뀌었고(완성형 및 진위형에서 4지선다형 및 진위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과목의 시행령과 헌법이 새로 추가되었다. 특히 법령 50문제 중 헌법이 15문제로 다른 과목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남

에 따라 헌법에서 점수 차이가 당락을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최신 법령을 업데이트하여 공부를 해야 하며(작은 글씨와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큰 글씨와 한글로 변환해서 보는 것이 공부하는 데 도움) 법령시험의 핵심은 전체를 이해하고 세부적인 사항(숫자나 기간, 시간이 명시되거나 별직조항 관련 사항은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에 신경을 썼다. 특히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며 의자에 장기간 앉아서 법령을 공부한다는 것이 상당한 인내를 요하고 암기하는 데 힘이 들기 때문에 녹음기에 법령을 전부 육성으로 녹음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하여 청취하니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등 기억을 오랫동안 지속 시키는 데 커다란 효과를 보았다. 헌법은 7급 공무원 수준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노량진 학원 근처 서점에 가서 헌법 교재를 구입하여(필자는 황남기 헌법책으로 공부) 2회 정도 꼼꼼하게 보고 책 저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올해 공무원 직급별 출제되었던 헌법시험 문제를 출력하여 풀어보고 맞추지 못한 문제는 체크하였다가 다시 풀면서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한 결과 좋은 점수를 얻었다.

논술준비의 핵심은 안보 및 시사, 정책, 제도 등의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준비를 해야만 자신 있게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선배들이 공부했던 자료(일명 고춧가루)를 참고하여 주제별로 서론, 본론, 결론에서 기술할 내용들을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자기것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대 연도별로 나온 논술 주제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빈도수를 확인하고 많이 출제된 문제는 그 만큼 중요도가 높다는 것이며 매스컴에서 다루고 있는 안보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주제를 분류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만 한다. 나의 경우에는 안보관련 사실 및 신문 스크랩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면접준비는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실시 되었는데 이전에는 집단면접 개념으로 응시자 개개인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변별력이 없었지만 이번 면접은 개인별로 20분전에 발표주제를 주고 이를 15분 정도 발표할 수 있도록 A4용지 1장 분량의 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면접관 3명에게 제출(머지가 작성용지 뒷면에 있어서 3부가 자동적으로 복사됨)하고 작성한 내용을 5분 정도 발표한 후 면접관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면접시에는 시사관련 문제나

일반상식을 묻는 문제(블루오션 전략, 유비쿼터스, 하이브리드, G20정상회의 개최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등) 들을 묻는데 이에 대해 평소부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즉각 답변을 하기가 어렵고 알고 있더라도 조리있게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경험삼아 본 시험을 합격하고 나니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였다고 나름 자부한다. 무엇보다도 공부할 시간을 염출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을 절제하였다는 데서 보람을 갖는다.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제한하는 요소를 얼마나 과감하게 뿌리치느냐? 가 중요하다. 동기, 친구, 각종 조직과 연계된 모임, 골프, 테니스, 등산 등 운동과 관련된 사항, 경조사 참석 등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못하면 집중을 할 수가 없다. 나의 경우는 첫 공식모임과 애사를 제외하고는 일단 모든 요소를 중단하였으며 체력관리는 아침형 인간이라 일과시작 2시간전에 부대에 출근하여 웨이트와 런닝머신 8km를 3년간 습관화하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공부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공부방법은 개인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의 경우는 혼자 독신숙소에 있었기 때문에 먹고 자고 공부하는 모든 것을 내 계획에 맞게 컨트롤할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법령시험과 관련하여 비상계획관 합격을 위해 학원에서 공부한 분들(직보반 기간 중인

분들)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공부(학원에서 예상문제를 작성하여 수차례 예비시험을 봄)를 하지 못했고 그들과 경쟁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자료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법령시험을 더 잘 보기를 원한다면 학원(서울 당산역 부근 위치)을 수강하거나 자료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역 신분으로는 이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공부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자 내가 계획한 전략대로 준비를 하였다면 합격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잠을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지금 잠을 덜 자고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진 한다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면서 필자가 준비하고 경험했던 사항들이 비상계획관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